

우리민족의 '근대인쇄' 시기를 따지자면 해방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해방 이전에는 근대식 인쇄가 별로 없었고 그나마 일제가 운영하던 인쇄소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의 인쇄역사 기록을 찾자면 1954년에 창간되어 오늘날까지 발행되고 있는 인쇄신문이 유일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역사를 더듬어 보는 의미에서 195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인쇄역사를 월별로 정리해 시리즈로 보도한다. 이번 호에는 1954년 이후 매년 6월에 보도되었거나 광고에 게재되었던 내용을 소개한다.

● 관변단체 이권행위 '이제 그만'

관변단체의 각종 수익사업 독과점으로 인해 인쇄업계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타격을 입었던 적이 있다.

1933년 6월 18일자 인쇄신문은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관우회, 체성회, 조우회 등이 친목, 복리를 앞세워 각종 수익사업을 독과점함에 따라 인쇄업계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들 단체들은 지난 1983년 총무처가 "늘어나는 퇴직공무원들의 불만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행정개선에 활용한다"는 취지하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이가운데 체성회는 우편주문판매, 우편엽서 인쇄, 전화번호부제작 등 당초 취지와 다른 이권사업에 손을 대면서 경기침체로 허덕이고 있는 인쇄업계의 고충을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우회 또한 인쇄·출판업체인 (주)협동기업을 설립, 관세청에서 필요한 각종 전산인쇄물등 모든 책자와 월간 '관세', 주간 '관세정보' 등 정기간행물을 독식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해 당시 인쇄 및 관련업계는 이 같은 침식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신정부의 개혁의지가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인쇄기술교육 보강촉구

서울시내 한 고교의 인쇄과 폐지 움직임에 대해 인쇄업계는 기술교육을 더욱 보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문교부에 제출했다.

1978년 6월 15일자 인쇄문화시보는 문교부가 공고특성화방침에 따라 서울 기계공과 인쇄과를 폐지시키려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대한인쇄공업협동조합회는 이를 인쇄산업육성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기존의 인쇄기술교육시설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요망하는 건의서를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했다고 전했다. 대한인쇄공업협동조합은 당시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인쇄산업은 수출상품의 매듭을 짓는 생산과정으로서 일반수출산업과 동일한 차원에서

에서 육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해외홍보 활동에 있어서도 우열은 그 나라의 산업수준이나 문화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인쇄산업의 현황은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의서는 "인쇄업계에서 정부 당국의 지원을 요망하고 있는 중요사항중의 하나인 인쇄기술교육의 강화에 있어서도 인쇄업계로서는 실업고등학교의 인쇄과 확충과 전문학교 및 대학에 대한 인쇄기술 교육을 제도적으로 배려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면서 "부산공전에 인쇄과를 설치해준 반면에 인쇄기능 인력양성에 있어 유일한 교육기관이었던 서울공고의 인쇄과는 이미 타과와 병합되어 존폐의 기로에 서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인쇄업계를 당황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의서는 "인쇄기능인력의 수급실정은 일반산업의 발전에 수반한 인쇄물의 증가로 그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인쇄산업 종업원중 타산업으로 전출하는 수가 날로 늘어나 인쇄기능인력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유일의 공과 인쇄과를 감축내지 폐쇄하는 것은 인쇄기술향상이나 인쇄산업육성시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쇄산업은 오히려 후퇴하게 되고 전반적인 산업발전에 막심한 지장을 가져오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강조했다. 건의서는 끝으로 "민족문화와 국위를 선양하고 각종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인쇄기술요원양성 대책과 단기적인 기능공의 양성을 위한 교육정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그 일환으로 기존의 인쇄기술 교육시설을 폐쇄시키지 말고 더욱 보강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 현직 및 전직인쇄인 제8대국회에 대거진출

1971년 6월 1일자 인쇄문화시보는 동년 5월 25일에 실시된 제8대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현직업자 또는 종래 인쇄업에 종사한바 있는 인사들이 대거 당선됨으로써 앞으로 업계지위향상을 위한 권익신장에 커다란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제8대 총선에서는 전북완주에서 출마한 삼화인쇄주식회사 유기정 사장을 비롯해 충북 영동에서는 정구중씨(전국정교과서주식회사사장), 전남 고흥에서는 신동식씨(전국정교과서주식회사사장), 경남 하동에서는 엄기표씨(전국정교과서주식회사상무이사)가 각각 공화당 공천으로 출마하여 당선됐으며 경북 경산에서는 신민당의 공전을 받고 출마한 이형우씨(전청구출판사사장)가 당선되었다.

시보는 당선된 5명의 인사가운데 유기정 의원은 인쇄로 대성한 우리나라의 제1인자적 인쇄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인쇄업계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잘 아는 인쇄인일뿐 아니라 대한인쇄공업협동조합연합회 창립초부터 국회의원 출마직전까지 회장직에 머무르면서 업계발전을 위해 많은 심혈을 기울인 업계유공인사라고 소개했다.

● 국산필프 본격 생산 시작

1980년 6월 16일자 인쇄문화시보에는 본격적인 국산필프 생산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기사가 실렸다. 정부와 산업은행의 출자로 이루어진 중화화학이 투자하여 설립된 경남 울주군 당월리 온산공업단지내 동해필프주식회사가 7월 정상기동을 앞두고 시험기동에 들어간 것이 바로 그것.

화학필프의 수입대체 및 제지원료인 필프의 안정공급을 위해 1974년 1월에 발족된 이 회사는 3년7개월간 공장건립을 위한 준비계획 단계를 거쳐 1977년 8월 온산공업단지에 18만5천평의 대지를 확보, 공사에 착공한지 2년 5개월만인 1980년 1월에 준공됐다.

시보는 이번 시험기동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본격적인 필프생산업

체를 갖게되었다며 인쇄용지의 주원료인 표백화학필프(BKP)를 연간 10만 5천톤을 생산, 국내 총수요량의 20%정도를 충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시보는 그동안 국내제지업체에서는 연간 50만톤의 필프를 수입해 2억5천만달러의 외화를 소비했지만 동해필프의 정상기동으로 연5천만달러의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거의 전량수입에만 의존하던 것이 국내생산됨으로써 제2차 가공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 국내시설노후도 심해 교체 시급

1977년 6월 1일자 인쇄문화시보는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신인쇄기기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 줄것을 요망하는 진정서를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제출했다고 전했다.

진정서는 당시 인쇄업계의 현황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쇄업소가 2천여개가 있고 인쇄업이 수주산업인 관계로 각 분야의 많은 수요자가 각각 인쇄소를 선택하여 발주하기 때문에 전국의 연평균가동률이 70%를 상회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동일 인쇄물이라도 수출 또는 주문자의 비밀보장 요청 등 그 인쇄물의 성질에 따라 분할인쇄할 수 없는 것도 있으며 인쇄회사별로는 100%가 되는 곳도 있고 계절적인 수요증감도 있으므로 연평균가동률이 70% 정도라는 것은 저조한 것은 아니며, 타업종과는 사정이 다르므로 성수기의 인쇄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생산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진정서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우리나라 인쇄기술향상에 도움이 되고 해외에 보내는 우수한 선전용책지와 수출품의 미려한 포장물과 선전용인쇄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신인쇄기기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치원 기자 kcw@print.or.kr